

MUSIC

새로운 모색과 시도가 이루어진 2005년 음악지도

유영희 | 작곡가, 음악평론가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12월을 맞아 정리해 본다. 2005년도 우리 음악계는 안팎으로 새로운 모색과 다양한 시도를 부지런히 해왔으며 여느 해보다도 풍성한 공연을 펼쳤다. 시작할 때의 마음의 반만이라도 그 맺음에 사용하면 모두에게 의미 있었던 2005년을 역사의 저편으로 떠나보낼 수 있으리라.

아직 다소 이른 감도 없지 않지만, 가랑잎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벌써 코끝 찡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요즈음, 한 해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5년 한 해도 우리 음악계에서는 안팎으로 새로운 모색과 다양한 시도가 부지런히 이루어져 왔으며 여느 해보다도 풍성한 공연이 열렸다.

기지개를 켜 신선한 음악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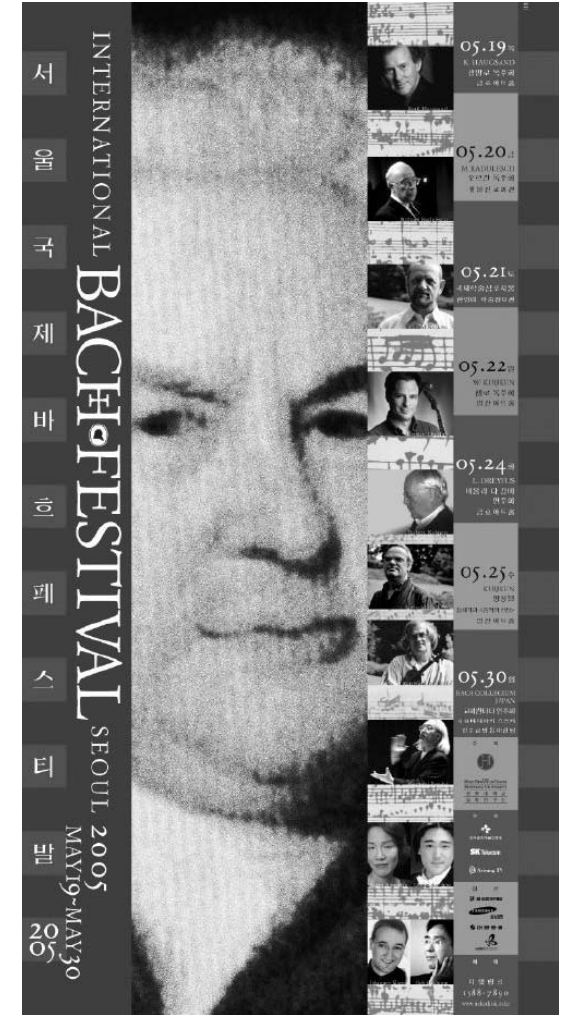
지난 1월, 여느 해와 다름없이 서울시향의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신영옥과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신년음악회, 그리고 각 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의 신년음악회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올해는 특히 손열음, 임동혁 등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은 중견연주자들의 아성을 일거에 무너뜨릴 만한 실력으로 정면 승부를 시도했으며, 손열음의 경우 2002년 제53회 비오티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국내외의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오다가 2005년에는 제11회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한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 1월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금호음악인상 기념음악회>에서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과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그리고 슈만의 <사육제>와 라벨의 <라발스>를 훌륭하게 피로해냈다.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진 음악활동을 보이고, 향후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젊은 음악인을 선발하여 포상·지원하는 <금호음악인상>의 제1회 수상자로 선발되기에 부족하기 없는 흡족한 연주회였다. 1월에는 국내 연주자들의 연주회는 물론 클라리네티스트 리처드 스톨츠만, 빈 소년 합창단, 엠솔루트리오 등의 무대로 알차게 신년(新年)을 맞았다.

2월의 음악계는 해외 연주자들에 의한 다양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로 풍성했다.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라

스칼라에서 활동하는 베이스 전승현의 국내 첫 리사이틀이 있었으며, 그 청명한 터치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적시는 섬세한 피아니즘의 소유자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와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있었다. 또한 요사이 불어온 고음악 열풍에 힘입어 조르디 사발과 에스페리옹 21이 초청되었으며, 미니멀리즘의 살아 있는 거장 스티브 라이히가 내한해 그의 대표작 <드러밍>을 국내 연주자들과 함께 협연해 타악기 앙상블의 새로운 맥을 짚는 일도 있었다.

물론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1세기 리스트의 재래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부다페스트 출신의 조르지 오라베츠도 내한해 리스트가 편곡한 베르디와 바그너 등의 피아노 작품과 <헝가리안 랩소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기타리스트 무라지 가오리의 내한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연주회 중의 하나였다. 국내 음악인들의 연주 중 눈에 띄는 것은 듀오 무대가 많았다는 점으로, 첼리스트 로렌스 레쎈와 피아니스트 신수정의 듀오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제라르 뵈레와 피아니스트 손국임의 듀오 연주회, 그리고 첼리스트 정명화와 피아니스트와 피아니스트 김정자의 듀오 연주회도 눈길을 끌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은 본격적으로 전국의 음악무대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기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뿐 아니라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이탈리아 베로나 야외무대를 중흥무진 누비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디바 홍혜경의 국내 첫 오페라 무대 <라 보엠>과 현대 음악 연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현악사중주 단 아르디티 사중주단의 내한공연도 뒤를 이었다. 또한 2005년과 2006년 두 해 동안 약 15차례에 걸쳐 모차르트 협주곡 전곡을 연주하는 대장정도 3월에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는 피아노협주곡은 물론 바이올린이나 목관악기까지 모차르트의 전 협주곡들을 망



5월에 열린 <서울 국제 바흐 페스티벌 2005>

라하는 것을 콘셉트로 기획되었는데, 김봉이 지휘하는 서울 튜터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강충모·이혜전 부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경민·박재원 부부가 그 첫 무대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충무아트홀의 개관에 힘입은 풍성한 음악회들도 3월의 음악회에서 빼놓을 수는 없다. 먼저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으

로 장중한 오프닝을 선사했고, 독일 고전음악 해석의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현악4중주단이 내한하여 베토벤과 슈베르트, 드보르작의 실내악을 연주했다. 그리고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첫 내한공연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장윤성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회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 첼리스트 이강호,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민영이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을 연주해 찬사를 받았다.

이밖에도 충무아트홀의 상주단체인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무대 <다이내믹 코리아> 역시 양악만의 페스티벌이 아닌 음악계의 총체적인 페스티벌로 이끌어 내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최근 도이체 오케스트라의 상주 작곡가로 임명된 작곡가 진은숙의 새 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3월 17일부터 개최된 통영음악제에서 소개되어 현대음악계에 중요한 획을 그었다. 아직 척박한 국내의 현대음악계에 그녀의 음악이 괴리감 없이 다가올 날들을 바래보는 근래 보기 드문 연주회였다.

4월에는 정격연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주최로 <서울 국제 바흐 페스티벌 2005>이 열려 쿠이켄 앙상블이나 바흐 콜레기움 재팬 등의 연주와 국제 학술심포지엄 <현대의 바흐>를 통해 국내 정격연주계의 전문화를 꾀하기도 했다. 정격연주에의 관심은 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크 첼로의 명인인 오펠리 가이아르의 독주회가 금호아트홀에서 있었는데, 이번 내한 독주회에서는 그녀의 걸출한 해석으로 유명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4번>, 그리고 브리튼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이 연주되었다. 안너 빌스마, 비스켈베이에 이어 바로크 첼리스트로서 현대 첼로 기법을 바로크 첼로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그녀의 숨씨는 우리의 무대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2년과 2004년의 내한 연주, 그리고 꾸준한 음반 작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의 무대가 금호아트홀에서 열려 선이 굵고 당당한 그녀의 음악세계를 유감없이 펼쳐 놓았다. 베토벤에서 에사 페카 살로넨에 이르기까지 고전에서 현대까지의 작품이 이날 무대에서 각기 다른 시대의 작곡가의 색을 발하며 재구현되었다. 소프라노 이네싸 갈란테의 서정적 무대도 4월에 있었으며, 호암아트홀이 새롭게 시작한 '한국의 클래식 스타' 시리즈의 일환으로는 첼리스트 정명화의 독주회가 있었다.

5월에는 <서울 국제 바흐 페스티벌 2005>이 계속 진행돼 당대연주의 묘미를 오래도록 청중에게 안겨 주었으며, 보리스 베르크만의 피아노 독주회와 크리스티나 오르티츠의 피아노 독주회, 마크 코소버 텔로 독주회와 더불어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조영미의 독주회도 열렸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의 연주회도 지켜볼 만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전혀 국내무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KBS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후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뜨거웠다. 작년 호암아트홀에서의 독주회도 전석 매진이라는 드문 사례를 남겼고, 이어 올해 5월의 연주회에서는 그 여세를 몰아 피아티고르스키가 편곡한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 드뷔시의 <내 마음에 눈물 흐르네>, 포레의 <넬> 등의 가곡 편곡작품 등을 연주했으며, 현대 작곡가의 작품으로 비올라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역시 선보였다. 이날 연주된 작품들은 같은 시기 발매된 그의 데뷔 음반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며, 완성도 높은 연주회와 음반으로 동시에 찬사를 받았다.

음반과 연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 첼리스트 양성원도 EMI에서 마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녹음하고 연주회를 열었다. 이미 코다이 등의 음반에서

지난 1월, 어느 해와 다름없이 서울시향의 신년음악회 등을 시작으로 신영옥과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신년음악회, 그리고 각 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의 신년음악회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올해는 특히 손열음, 임동혁 등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도 특기할 만하다.



10월에 열린 <통영국제 음악제> 폐막연주회

국제적인 신망을 얻은 터라 그의 음반에 대한 염려는 전혀 필요 없다. 천주교 명동성당 대성전에서의 연주는 거룩하고도 장엄한 분위기에 일조(一助)되어 그의 내면의 울림이 한층 강조되는 연주였다. 5월의 특별함을 꼽으라면 역시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의 개관과 그 페스티벌을 들지 않을 수 없겠다. 3월에 개관한 충무아트홀과 더불어 이 센터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 그리고 호암아트홀 등의 몇 안 되는 공연장의 폭을 한껏 넓혀 준 셈이다. 소프라노 박정원과 피아니스트 박종훈·한동일, 명창 안숙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을 비롯, 아카펠라 그룹 '디 아이디어 오브 노스'가 심도 높은 하모니를 들려주기도 했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는 4명의 더블베이스 주자로 결성된 '베이스 갱' 그룹의 이색적인 무대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5월을 빛낸 연주로는 알반베르크 현악 사중주단의 내한공연이 있다. 30년 이상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온 이들은 연주는 물론 활발한 레코딩 작업으로 많은 음반을 출시해 왔다. 고전에서 아방가르드까지 거의 전 시대를 아우르는 이들이 실제로 무대에서 들려준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의 섬뜩한 보잉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서울 바로크합주단 창단 40주년 특별 정

기 연주회와 다니엘 리의 첼로 리사이틀도 빛나는 5월에 그 빛을 더한 무대들이었다는 생각이다.

풍성하고 참신한 후반기 음악회들

어느 한 달 음악에 무심했던 달이 있었을까 만은, 6월 또한 그에 거스르지 않았다. <2005 교향악 축제 - 교향악, 그 하나 됨을 위하여!>가 교향악 축제로서는 17회를 맞았다.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이 음악회는 국내 최대, 최고의 음악축제로 우리나라 음악문화 발전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올해의 교향악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실력 있는 젊은 연주자를 선보이는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큰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치고는 편협한 레퍼토리 등의 선곡의 문제와 유료 관객층의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매끄럽지 못한 면모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놓칠 수 없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5년 만의 내한 무대도 주목을 받았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는 물론 음반과 연주를 통해 그 지지층이 넓은 플레트네프의 연주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자유로운 감성과 냉철한 지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앙상블 모데른의 내한공연도 6월의 굵직한 무대. 1980년에 창단된 세계 정상급의 현대음악 앙상블로 19명의 다국적 솔로리스트들의 기량이 실로 놀라운 단체이다. 솔리스트로서의 영향뿐 아니라 이들이 뿜어내는 현대음악의 긴밀한 시운드들은 현대음악을 대중에게 다가서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윤이상 타계 십주기를 기념해 윤이상의 <팔중주>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쇤베르크의 <실내 교향곡 1번 op.9>으로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찬사를 받았다.

7월에 눈에 띄는 연주로는 조수미와 호보로스토프스키의 듀오 콘서트를 들 수 있다. 세계 정상급 리릭 콜로

라투라 소프라노 조수미와 세계 3대 바리톤 중의 한 명인 러시아의 르보로스토프스키가 한 무대에 선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조수미 개인으로 본다면 자신의 세계무대 진출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으며, 르보로스토프스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립스에서 텔로스 레이블로 이적한 후 본격적으로 러시아 레퍼토리에 힘을 쏟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날의 공연에서는 각기 최고의 장기에 걸맞은 레퍼토리를 들려주었다. 조수미는 화려한 기교가 요구되면서 드라마틱한 성격이 짙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품들의 아리아를, 르보로스토프스키는 러시아 오페라의 아리아들과 예술가곡을 열창했다. 그들이 들려준 중창은 독창을 능가하는 파워로 무대와 객석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콘스탄틴 오벨리언이 이끄는 모스크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썩 훌륭했다.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쇼스타코비치 서거 30주년 연주회> 앙상블 모데른과 함께하는 <2005 국제 윤이상 아카데미>도 더운 7월을 신선하게 지켜준 연주회들이었음에 분명하다.

8월의 음악계는 전에 없이 풍성했다. 일단 기존의 음악회장에 새로 가세한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와 충무아트홀은 연일 선이 굵은 행사만을 다루고 있었으며,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창단 10주년 음악회, 부천 필의 호암예술상 수상기념 <한밤의 콘서트>도 이에 가세하고 있었다.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에는 장한나가 베를린 필하모닉 신포니에타와 순회공연을 가졌다. 해를 거듭 할수록 그 원숙미가 남달라지고 있는 장한나는 그녀의 데뷔작이기도 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차이코프스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안단테 칸타빌레>, 그리고 파가니니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을 연주했다. 기교와 감성, 그리고 철학적 사고의 뒷받침까지 가세해 이제 연주자로서 최상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녀의 무대에는 언제라도 안심하고 들을 수 있다는 신뢰가 전제되고 있어 흐뭇하다.

이번 9월은 여느 해의 9월과는 참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스페인의 명 기타리스트 페페와 앙헬로메로가 내한해 아버지 셀레도니오가 작곡한 <말라가 협주곡>, 로시니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을 비롯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5번>에서는 페페로메로의 지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로드리고의 <아랑훼스 협주곡>이다. 앙헬 로메로의 연주는 신비감이 물씬 풍기면서도 자연스러운 연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클로트 프랑크의 피아노 독주회도 있었지만, 정작 9월에 우리 곁을 찾아온 음악회의 진수는 역시 국내에서 초연된 <니벨룽의 반지> 사이클이 아닌가 싶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그 전설적인 무대를 접하게 된 것으로 위안삼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마린스키 오페라단은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기대에 부풀게 하는 무엇이 있다. 일단 독일 류(流)의 '반지'를 상상한 사람들에게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겠으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토속적인 요소들에 현대적인 감각과 색채를 더하여 만든 러시아 판 '반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 이상이 없을 것이다. 16시간이라는 공연시간은 이것들을 표현하기에 긴 시간이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내한공연도 있었고, 광복 60주년과 한일 수교 40년을 축하하는 <평화음악회>가 일본의 명지휘자 아키야마 카즈오시의 지휘와 히로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프라노 이윤아와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어 앤 아키코의 협연으로 대구와 서울, 그리고 부산에서 있었다. 호세 카레라스의 독창회나 바

아직 2005년은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화룡점정은 12월에 들어서서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마음 놓고 기쁘고 즐거운, 감동스러운 음악회도 있었으나 연주를 위한 연주, 공연을 위한 공연도 그 수가 적지 않은 듯 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협연 무대, 부천 필의 모차르트 페스티벌 등이 9월에 가세했다.

10월의 빅 카드는 성남아트센터의 개관이 아닐까 한다. 올해 벌써 여러 곳의 연주홀이 개관했지만 그 시설이나 음악회의 기획력으로 볼 때 다른 연주홀을 능가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그리고 앙상블시어터까지 제대로 갖춘 이 공연장에서는 백건우가 이반 피셔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황병기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하는 콘서트와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독창회 장영주가 쿠르트 마주어와 런던 필하모닉과의 협연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올 연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어 경기도 지역의 음악팬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선사한다.

10월에는 <통영국제 음악제>의 가을시즌이 개막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기억'을 주제로 한 이번 가을 시즌에는 윤이상의 50년대 초기 가곡에서부터 80~90년대까지의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윤이상을 기리며 시작된 <통영국제 음악제>가 올해 윤이상 타계 10주기를 맞았으니 어찌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겠는가. 3일에 열린 <윤이상 음악의 밤>은 이번 가을 시즌의 하이라이트였다. 윤이상의 작품으로만 짜여진 레퍼토리들을 바이올리니스트 콜리아 레싱, 오보이스트 사토 키 아야야마, 라르푸르라르 앙상블, 현대 성악 앙상블, TTMF 앙상블이 참여해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집중 조명했다. 또한 폐막 연주회에서는 윤이상의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폴란드의 필하모니아 포모르스카가 윤이상의 <교향곡 32번>과 <바라>를 연주해 더없이 의미 있는 <통영국제 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10월에는 유리 바쉬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초청공연, 이보 포고렐리치 피아노독주회, 보로딘 현악4

중주단 초청음악회, 전국의 실력 있는 합창단이 참가하는 합창제, 1969년에 시작해 올해 33회를 맞은 범음악제가 그 중 눈에 띈다.

11월에는 단연 최희연의 베토벤 소나타 대장정의 마지막 무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연주회에서는 <피아노소나타 5, 18, 25, 32번>을 선보여 3년여에 걸친 베토벤과의 사투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희연은 2002년에는 한 해의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사람에게 주는 상인 제35회 난파음악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거창적인 기교를 선보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호평을 받아 왔다. 2002년부터 금호문화재단의 기획시리즈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연주회를 매년 2회씩 가져왔는데, 이번 연주를 끝으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베토벤에 접근하는 어느 연주자들 못지않게 진지하고 세밀한 해석력을 보여 온 그녀의 족적에는 박수를 보낼 만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을 기대하며

아직 2005년은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화룡점정(畫龍點睛)은 12월에 들어서서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이편 언덕에서 바라보니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다. 마음 놓고 기쁘고 즐거운, 감동스러운 음악회도 있었으나 연주를 위한 연주, 공연을 위한 공연도 그 수가 적지 않은 듯 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음악이 청중에게 감동만을 주는 매개체는 아닐 지나, 준비하는 자의 진심이 맞이하는 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 때 또 다른 의미의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할 때의 마음의 반만이라도 그 맺음에 사용된다면 모두에게 의미 있었던 2005년을 역사의 저편으로 떠나보낼 수 있으리라. ●